

# “불교는 행학...아는 것에 그친 배움 아무 소용없어”



**목정배 교수는** 1937년 경남 사천 출생. 동국대 불교학과 졸업. 철학박사. 동국대 불교대학장, 불교대학원장과 불교문화연구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사단법인 대한불교법사회 이사장이다. 논문은 <의적의 보살계본소 연구> 등이 있고, 저서로는 <삼국시대의 불교> <대승보살계 사상> <한국문화와 불교> 등이 있다. 암도 스님, 재선 스님, 태진 스님(갑사 주지), 박범훈(중앙대 총장), 차차석(금강대 교수), 신성현(동국대 교수), 선주선(원광대 교수) 외 논문 지도를 받은 다수가 교계 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나는 지금도 매주 강의를 한다. 일·화·목 일주일에 세 번씩 (사대) 대한 불교법사회(서울 신당동)에서 법회와 논강을 진행한다. <반야심경> <선가귀감> <원각경> <기신론> 등 부처님 경·율과 논사의 눈을 대조하는 방식이다. 요점 일요법회는 <입보리행정>을, 화요강좌는 <선종영가집>을, 목요강좌는 <대반열반경>을 진행한다. 강의를 주로 하다 보니 법사회 법당은 신도가 얼마 없다. 목요강좌가 50여명, 화요강좌가 20여명, 다섯명(나는 이들을 5비구라 부르다)으로 시작했던 일요법회는 현재 30여명이 됐다. 부처님 정법을 목말라하는 하는 이들을 볼 때 마다 나는 쉬지 않고 꾸준히 해야겠다고 다짐한다.

그런 다짐이 가피를 입은 것일까? 2006년 10월 11일 강의를 마치고 찾았던 고려대 병원에서 ‘만성격막하출혈’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몇 곳에서 검사를 더 받은 후 뇌속병원에서 수술했는데 집도한 의사가 “이정도면 쓰러져야 하는데 이것은 기적이다. 이럴 수 없다”며 놀랐다. 10월 13일 수술 후 24일 퇴원해 어느 정도 회복되자마자 바로 인도성지 순례 길에 올랐다. 수술 보름 후 10박 11일간 찾은 인도에서 부처님 기운을 직접 받았는지 예전보다 더 건강해졌다. 그래서 다시 2007년 2월부터 강의를 시작해 오

늘에 이르렀다. 종심(從心·일흔 살)을 넘은 지금도 내 강의는 양적으로도 젊었을 때와 변함이 없다.

나는 불교학을 하기 위해 교계 기자, 전국신도회, 동국대 조교, 강사를 두루 거쳐 교수가 됐다. 2002년 교수직을 정년퇴직하고 2004년까지는 서울 불교대학원 총장을 역임했다. 올해 20주년이 되는 (사)대한불교법사회를 기념해서는 이사장을 맡고 있다. 2007년 8월에는 소일거리 삼년 글과 그림을 갖고 윤범모 교수(경원대) 등 주변 사람들이 성화해서 결국 10월에 전시회도 열었다. 제자 박범훈 중앙대 총장이 내 글에 곡을 붙인 ‘연꽃누리 가독회’, ‘천동소리’ 등 찬불가는 지금도 불교 TV에서 심심치 않게 들린다.

경남 사천에서 태어난 나는 6살 때

밀양에 잠시 머물다 초등학교 졸업 무렵 6.25전쟁으로 부산으로 갔다. 부산에서 해동중과 해동고를 다녔는데 고2 때 통도사 극락암에서 경봉 스님을 만났다. 2-3개월 머물다보니 스님이 출가하러 갔고, 출가 후 2월 보름 계를 받기로 예정됐었다. 그때 어린 마음에 고민하기를 ‘출가를 했으니 불살생·불투도·불사유·불망어·불음주 계를 지켜야 한다. 다른 것은 몰라도 심심하면 거짓말을 하는데 망어계를 어찌 지킬 것인가?’ 했다. 평소 스님들로부터 “거짓말하면 사천왕이 뒤통수를 때린다”는 말을 들은 기억에 안되겠다 싶어 도망쳤다. 집을 나왔으니 다시 학교를 다녀야 했다. 다니던 해동고 3학년으로 복학하려 하니 출가기간 동안 결석이 많아 곤란하다는 답변이 있었다. 다행히 이사장이던 박대관 스님(당시 통도사 주지)이 “이 학생은 다른 곳도 아니고 절에서 공부하러 왔다”고 말해 복학이 허용됐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동국대 불교학과에 입학했다.

대학이 장학금 8만4천원을 그곳에 맡겨 줬다. 누구든지 ‘목정배’ 이름을 대고 먹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다보니 나중에는 거꾸로 의상이 8만4천원을 넘기도 했고, ‘날아가는 까마귀도 목정배 술 안 먹었다’고, ‘출가 후 2월 보름 계를 받기로 예정됐었다. 그때 어린 마음에 고민하기를 ‘출가를 했으니 불살생·불투도·불사유·불망어·불음주 계를 지켜야 한다. 다른 것은 몰라도 심심하면 거짓말을 하는데 망어계를 어찌 지킬 것인가?’ 했다. 평소 스님들로부터 “거짓말하면 사천왕이 뒤통수를 때린다”는 말을 들은 기억에 안되겠다 싶어 도망쳤다. 집을 나왔으니 다시 학교를 다녀야 했다. 다니던 해동고 3학년으로 복학하려 하니 출가기간 동안 결석이 많아 곤란하다는 답변이 있었다. 다행히 이사장이던 박대관 스님(당시 통도사 주지)이 “이 학생은 다른 곳도 아니고 절에서 공부하러 왔다”고 말해 복학이 허용됐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동국대 불교학과에 입학했다.

사실 처음부터 동국대에 진학할 생각은 없었다. 수학과 물리, 철학을 잘 했던 나는 물리공부를 위해 서울대와 전액장학 혜택을 주는 조선대를 사이에 두고 고민했다. 그때 “마음을 연구하는 심성학이 물리학을 초월한다”는 조언이 있었다. 학비가 문제라면 종교고등학교를 마쳤으니 동국대에 서 중편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결국 조선대의 전액장학과 서울대의 물리학을 초월한 학문을 결합할 수 있는 두 곳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동국대 불교학과를 택했다.

입학해서는 종비장학과 학과우수장학 수혜를 같이 받았다. 학비가 면제됐을 뿐더러 현금까지 생기기 시작했다. 이를 돌려서 쓰지 않고 저축했다. 그 돈을 술 마시는데 썼다. 쌍용빌딩 뒤 ‘양지집’에

매주 제일 먼저 전임이 될 수 있었다. 전임이 되기까지 공부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2년 후배까지 모두 강의 배정을 받았지만 나만 못 받았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그 덕에 교계 기자도 하며 안목을 넓히고 더 성장할 수 있었다. 1965년 석사를 마쳤을 때 청담 스님을 도선사에서 만났다. 청담 스님은 당시 명함에 ‘이 명함을 가져간 사람이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하라’고 써주며 이한상 사장(대한 불교신문)을 찾도록 했다. 그 후로 나는 3년간 기자생활을 했다.

1966년 10월 15일 밀양 표충사에서 효봉 스님이 열반하셨을 때 일이다. 당시 대한불교신문 기자였던 나는 좌필입명한 효봉 스님을 취재하고, 스님의 법구를 서울로 모시는 영광도 누렸다. 불교는 ‘행학(行學)’이다. 행하는 만큼 배워야 하고 배우는 만큼 행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엔 ‘술·담배를 끊겠다’ 다짐하는데 나는 ‘돈·연돈주(煙煙頓酒) 한지 오래다. 남들은

담배를 끊을 때 담배를 멀리하지만 나는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안했다. 요즘도 친구들이 앞에서 술을 마셔도 나는 안한다. 이미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무엇 때문에 집착하는가. 일단 자기가 나쁘다는 것을 알고 끊기

때문에 안하는 것과 있는데도 안하는 것은 분명 다르다. 그래서 신도는 행(行). 법(法)은 화(化). 부처는 증(證)이다. 내게 남은 숙제가 있다. 더 큰 불교를 위해 삼귀의 대상을 불·법·행(마음) 자리로 바꾸고 싶다. 일부러 내게 강의배정을 얹던 분은 물론이니 모두 강의를 선하게 회향하고자 실천했다. 남이 내게 어떤 은혜해도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마음에 담이되면 잘못 아닌가? 그것에 나를 구속하지 않아야 괴롭지 않다. 느낌 자체가 무상함을 알고 흘러야 한다. 무상, 무아(아)고 있는 수 없다. 바로 열반적이다. 내 강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나는 행복하다. 정리·조동섭 기자/사전·박재원 기자

박사과정 중 강사활동을 하면서 교과개편에 참여했을 때다. 커리큘럼을 살펴보니 예전에는 박한영 스님이 강의하던 ‘계율약전’ 과목이 있었는데 해방 이후부터는 과목이 없었다. 그래서 일단 ‘계율학’이란 명칭으로 과목을 개설했고 마땅히 강의할 사람이 없어 내가 맡게 됐다. 갑자기 강의를 맡으니 막막했다. 하지만 당시 유식과 중론은 모두 도반들에게 강의가 배정됐지만 계율 전공자는 없었다. 지관 스님, 인환 스님은 <사분술>을 중심으로 공부하니 나는 <범망경>을 갖고 보살계를 연구하겠다고 결심했다. 그래서 승장·의적들이 찬술한 <범망경> 주석서를 모두 섭렵하고 번역을 마쳤다. 그 결과 <의적의 보살계본소 연구>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은 나는 동

국대 불교학과에 입학했다. 대학이 장학금 8만4천원을 그곳에 맡겨 줬다. 누구든지 ‘목정배’ 이름을 대고 먹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다보니 나중에는 거꾸로 의상이 8만4천원을 넘기도 했고, ‘날아가는 까마귀도 목정배 술 안 먹었다’고, ‘출가 후 2월 보름 계를 받기로 예정됐었다. 그때 어린 마음에 고민하기를 ‘출가를 했으니 불살생·불투도·불사유·불망어·불음주 계를 지켜야 한다. 다른 것은 몰라도 심심하면 거짓말을 하는데 망어계를 어찌 지킬 것인가?’ 했다. 평소 스님들로부터 “거짓말하면 사천왕이 뒤통수를 때린다”는 말을 들은 기억에 안되겠다 싶어 도망쳤다. 집을 나왔으니 다시 학교를 다녀야 했다. 다니던 해동고 3학년으로 복학하려 하니 출가기간 동안 결석이 많아 곤란하다는 답변이 있었다. 다행히 이사장이던 박대관 스님(당시 통도사 주지)이 “이 학생은 다른 곳도 아니고 절에서 공부하러 왔다”고 말해 복학이 허용됐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동국대 불교학과에 입학했다.

사실 처음부터 동국대에 진학할 생각은 없었다. 수학과 물리, 철학을 잘 했던 나는 물리공부를 위해 서울대와 전액장학 혜택을 주는 조선대를 사이에 두고 고민했다. 그때 “마음을 연구하는 심성학이 물리학을 초월한다”는 조언이 있었다. 학비가 문제라면 종교고등학교를 마쳤으니 동국대에 서 중편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결국 조선대의 전액장학과 서울대의 물리학을 초월한 학문을 결합할 수 있는 두 곳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동국대 불교학과를 택했다.

입학해서는 종비장학과 학과우수장학 수혜를 같이 받았다. 학비가 면제됐을 뿐더러 현금까지 생기기 시작했다. 이를 돌려서 쓰지 않고 저축했다. 그 돈을 술 마시는데 썼다. 쌍용빌딩 뒤 ‘양지집’에

매주 제일 먼저 전임이 될 수 있었다. 전임이 되기까지 공부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2년 후배까지 모두 강의 배정을 받았지만 나만 못 받았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그 덕에 교계 기자도 하며 안목을 넓히고 더 성장할 수 있었다. 1965년 석사를 마쳤을 때 청담 스님을 도선사에서 만났다. 청담 스님은 당시 명함에 ‘이 명함을 가져간 사람이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하라’고 써주며 이한상 사장(대한 불교신문)을 찾도록 했다. 그 후로 나는 3년간 기자생활을 했다.

1966년 10월 15일 밀양 표충사에서 효봉 스님이 열반하셨을 때 일이다. 당시 대한불교신문 기자였던 나는 좌필입명한 효봉 스님을 취재하고, 스님의 법구를 서울로 모시는 영광도 누렸다. 불교는 ‘행학(行學)’이다. 행하는 만큼 배워야 하고 배우는 만큼 행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엔 ‘술·담배를 끊겠다’ 다짐하는데 나는 ‘돈·연돈주(煙煙頓酒) 한지 오래다. 남들은

담배를 끊을 때 담배를 멀리하지만 나는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안했다. 요즘도 친구들이 앞에서 술을 마셔도 나는 안한다. 이미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무엇 때문에 집착하는가. 일단 자기가 나쁘다는 것을 알고 끊기

때문에 안하는 것과 있는데도 안하는 것은 분명 다르다. 그래서 신도는 행(行). 법(法)은 화(化). 부처는 증(證)이다. 내게 남은 숙제가 있다. 더 큰 불교를 위해 삼귀의 대상을 불·법·행(마음) 자리로 바꾸고 싶다. 일부러 내게 강의배정을 얹던 분은 물론이니 모두 강의를 선하게 회향하고자 실천했다. 남이 내게 어떤 은혜해도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마음에 담이되면 잘못 아닌가? 그것에 나를 구속하지 않아야 괴롭지 않다. 느낌 자체가 무상함을 알고 흘러야 한다. 무상, 무아(아)고 있는 수 없다. 바로 열반적이다. 내 강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나는 행복하다. 정리·조동섭 기자/사전·박재원 기자

## 나의 삶 나의 불교학

부처님 정법 목말라하는 이들 볼때 꾸준히 해야겠다고 다짐

더 큰 불교 위해 삼귀의 대상을 불·법·행으로 바꾸고 싶어

### "승기건강비법 신비의 나무"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굵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에게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갖가지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삼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 방영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들쭉,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에 특효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공명(공명)이 든 여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약품은 아니며 체질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실험사례"** 폐 식염수에 마가목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경기도 양평군 용문산 도솔암**  
전화번호 : (031)775-1285 저수 대진 합장

### "신수비결"

2008년 무자년의 나의 운세

- 직업 운, 사업 운, 재물 운
- 이성과의 인연, 성적 및 진학 운
- 일진 및 외출하는 날
-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집에서 2008년의 운세를 볼 수 있음

적중률 90%가 넘는 신비의 비결로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한편의 책으로 완성하였고, 휴대도 간편함.

● 신수비결 : 30,000 (삼만원)

### "이름대사전"

-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사용
- 320여개의 성씨별로 상생과 수리오행, 삼원오행, 음령오행을 맞추고, 성씨별로 2000~3000여개의 이름들로 구성
- 개명, 작명, 상호, 범명 등에 바로 사용할 수 있음
- 이름대사전 : 50,000 (오만원)

\* 글로 쓰이기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이름대사전 총정리 CD를 보급합니다. (정가 30만원)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매일경제신문 인체경영학 연재

###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역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여성이 살배기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배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 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똥통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성화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속박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기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딱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만 무엇이 빠지는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23-0708**  
www.chorokwon.com